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3월 11일 일요일 낮 2시 30분
길상사 설법전

어느덧 법정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법정스님의 청빈한 삶과 글은 아직까지도 사회의 등불처럼 남아있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말'의 좋은 본보기이기도 한 법정스님의 글은 이미 하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님의 여러 산문집을 읽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김현성이라는 음유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스님의 글 일부의 내용이 인용되기도 했으며, 이는 법정스님께 생전에 허락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과 길상사는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KBS 아름다운 노랫말 상을 수상하고, 매년 '연등축제'의 노래 음반을 만들어 부르고 있는 음유시인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함께하는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3월 11일 길상사 설법전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피리와 대금, 해금 등 우리악기에서부터 기타, 아코디언이 어울려져 깊은 산 중의 목탁소리와 풍경소리로 잔잔한 바람소리처럼 다가갈 것이며, 정호승의 <풍경 달다> 도종환의 <돌아가는 꽃> 문태준의 <운문사 뒤뜰 은행나무> 등 불교적인 이야기와 풍경이 담긴 시가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2. 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향기로운 삶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꽃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들의 분수에 맞도록 열어 보인다.

억지로 꾸미려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 만이 지닌 그 특성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28쪽



노을 지는 들길에 서서
꽃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냐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들 곁에서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내 분수를 헤아려 봅니다.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4월 7일	오후7시~9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4월 14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4월 14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지장재일 기도	4월 8일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4월 14일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4월 21일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 9시50분, 저녁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 9시50분, 저녁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